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17년 전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아시아 지역 64% 차지



### 물류정책·산업동향

1. 미얀마, 경제성장 도모위해 전자상거래에 관심
2. MarTID, 자율주행선박 도입을 위한 글로벌 설문조사 실시
3. 칼마르(Kalmar)사, 미국 롱비치항에 완전 전기 트랙터 공급
4. Ocean Alliance와 Yang Ming, 새로운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상호 협력

### 명사 스피치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과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2018. 11. 2. / 중장기 항만·물류 정책 토론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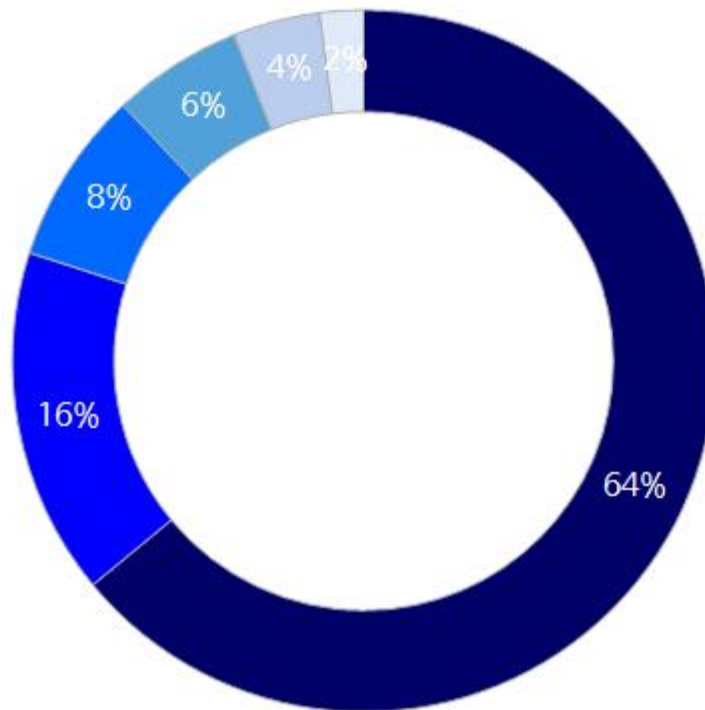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17년 전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아시아 지역 64% 차지

대륙별 컨테이너 처리량 비교(2017)



■ 아시아 ■ 유럽 ■ 북중미 ■ 남미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자료 : <http://unctadstat.unctad.org>

- 2017년 대륙별 컨테이너 처리량을 파악한 결과 아시아 지역이 전체 화물대비 6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은 기록함
  - 아시아(64%)에 이어서 유럽(16%), 북중미(8%), 남미(6%), 아프리카(4%)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임
- 2017년 전 세계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총 7억 5천 2백만 TEU로써 상해항이 약 4천 2백만 TEU를 처리하여 5.6%의 점유율로 주요 컨테이너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부산항의 경우 약 2.7%의 점유율을 기록함

■ 참고자료 : <http://unctadstat.unctad.org>, 2018.11.5.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mailto:kdong@kmi.re.kr)



## 물류정책·산업동향

## 미얀마, 경제성장 도모위해 전자상거래에 관심

- 미얀마 정부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 무역 증대,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방안으로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UNCTAD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미얀마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얀마 정부는 관계자들과 다음 단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 또한 UNCTAD는 미얀마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안함
- 지난 10월 말 미얀마 정부는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Nay Pyi Taw)에서 간담회를 가짐
  - 미얀마 상업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자국의 경제 및 무역 성장과 더불어 고용창출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힘
- 전자상거래의 이점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기관들 간의 공통 비전 설정을 기반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함
- UNCTAD 관계자는 미얀마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 제공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경쟁이 치열한 통신 분야, 혁신적인 전자상거래 제품 운송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미얀마 자국만의 강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UNCTAD는 미얀마가 전자상거래 활용으로 인한 성장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현재 미얀마 내에서도 특히 양곤(Yangon)과 만달레이(Mandalay)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무역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정책 조치가 필요함
  - 한 예로 법률 시스템 개정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며, 향상된 전국 우편 주소 시스템은 상품의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임
  - 이는 나아가 관련 분야 신생 기업들의 진입을 촉진하게 될 것임

■ 참고자료 : <http://mizzima.com>, 2018.11.5.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 MarTID, 자율주행선박 도입을 위한 글로벌 설문조사 실시

- 최근 MarTID는 2019년도 설문조사 내용 및 세부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
  - MarTID(Maritime Training Insights Database)는 국제해사대학교(World Maritime University), Marine Learning Systems 및 New Wave Media의 공동 프로젝트로 2018년 시작되어 청정해역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상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임
  - 동 시스템은 선원 교육 및 기술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비한 선박 운용 관련 선원 교육 및 기술 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글로벌 설문 조사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데이터는 해운항만물류 업계 및 규제 당국의 정책 수립, 의사 결정, 벤치마킹 및 운영 최적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특히 2019년도 핵심 조사내용은 첫째 추적 가능한 연도별 벤치마킹 데이터로 교육 예산, 훈련 모델, 인력 교육, 기술사용, 주요 교육 이니셔티브 및 선원 수 통계를 포함
  - 두 번째는 2019년도 특별 주제인 자율운항선박 운용 관련 해상훈련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의사 결정 지원, 선교 관리 수준,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인간(선원)의 개입 정도 등이 포함됨
  - 더불어 2019년도 'MarTID 교육실무 보고서'는 선박 운전자 및 관리자, 해양 관리자, 해양 전문가 및 선원의 의견이 반영될 예정임
- 이에 앞서 2018년 첫 글로벌 설문 결과를 반영한 'MarTID 교육실무 보고서' 출판 완료
  - 2018년도 첫 글로벌 설문조사의 핵심 내용은 선원 교육 및 훈련 예산의 세계적 추세, 선원 1인당 평균 교육비,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교육 기술 및 훈련 방법 등임
  -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MarTID 교육실무 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교육훈련 주체에게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패 사례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해상 선박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세계 최초 글로벌 선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 전망
  - 전세계 해상 선박사고의 약 80%가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주요 해운항만물류 선진국들은 선사와 정부 해상훈련센터의 모범 사례 및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세계 최초 글로벌 선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인 MarTID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marinelink.com, 2018.11.06., MarTID.org, 2018.11.07.

박주동 전문연구원

051-797-4660, jdpark@kmi.re.kr



## 칼마르(Kalmar)사, 미국 롱비치항에 완전 전기 트랙터 공급

- 칼마르(Kalmar)사는 완전 전기 트랙터인 'Kalmar Ottawa T2E'를 미국 롱비치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6개월에 걸쳐 공급할 예정임
  - 이 트랙터는 컨테이너 터미널 및 근거리 주행 거리가 필요한 기타 용도의 트레일러 취급 작업용으로 설계됨
- 칼마르(Kalmar)사의 자체 최신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 완전 전기 파워 트레인을 갖춘 것이 특징임
  - 자체 최신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기반의 무배출시스템<sup>1)</sup>을 적용한 완전 전기 파워 트레인을 장착함
  -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충전 상태와 충전이 필요한 시기를 나타냄
  - 이는 디젤 엔진 트랙터에 비해 소음, 진동 및 열 발생이 적음
- 오늘날 미국의 항만 운영자들은 보다 더 친환경적인 장비를 요구하고 있음
  - 롱비치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항만은 2030년까지 항만 내 모든 디젤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며 항만 인근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
  - 이는 캘리포니아 기후 투자의 일환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과 동시에 공공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임
- 국내에서도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및 노조를 포함한 모든 항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항만의 대기오염 문제를 극복해야함
  - 국내에서도 선박의 접안 시 디젤엔진을 대신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공회전을 억제하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항만공사도 AMP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민간 기업과 노조를 포함한 모든 항만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수시로 협의 및 협력해 친환경이라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대비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함

■ 참고자료 : <https://www.greenport.com>, 2018.11.06.

김효재 연구원

051-797-4686, hj\_kim@kmi.re.kr

1) 무배출시스템(Zero Emission): 산업활동에 있어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순환형 산업시스템. 제로에미션

## Ocean Alliance와 Yang Ming, 새로운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상호 협력

- Ocean Alliance와 Yang Ming은 화물 및 데이터 흐름을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오픈 플랫폼 GSBN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시작하였음
  - Ocean Alliance의 4대 회원사인 CMA CGM(프랑스), Cosco Shipping Lines(중국), Evergreen Marine(대만), OOCL(홍콩)과 Yang Ming(대만)은 홍콩의 물류 전문업체 Cargo Smart와 협약을 맺고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 GSBN(Global Shipping Business Network) 컨소시엄을 구성
  - 그 외 DP World, Hutchison Ports, PSA International,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등의 터미널 운영사도 GSBN 프로젝트에 참가
  - Cargo Smart는 선사, 터미널 운영사, 세관 당국, 화주 및 물류 공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여 공급 체인의 공동 혁신과 디지털 변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됨
- GSBN의 첫 번째 계획은 위험 화물, 송장 발행 및 화물 출고 관련 문서 등의 선적 관리 문서 프로세스 개혁을 위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제공임
  - GSBN의 프로토타입은 12월에 제공될 예정으로, 화주가 문서를 디지털화 하고 공급 체인 관련 당사자와 자동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서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상품 배송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
- GSBN은 AP Moller-Maersk와 IBM에 의해 공동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 TradeLens 실시 (2018년 8월에 발표)에 신속 대응한 결과임
  - 거래 및 공급 체인을 위한 개방형 표준 플랫폼 TransLens에는 현재 로테르담 항, PSA 싱가포르,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 및 홍콩의 현대식 터미널 등의 주요 항만업체를 포함하여 총 94개의 조직이 가입해 있음







자료 : <http://www.seatrade-maritime.com>

■ 참고자료 : Seatrade Maritime News <http://www.seatrade-maritime.com>, 2018.11.7.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mailto:han@kmi.re.kr)